



전주대,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전주대 간호학과는 지난 1일 오후 2시에 예술관 2F 아트홀에서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촛불점화 의식을 통해 몸을 대위 주위를 밝혀주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을 이어받아 사랑과 섬김의 돌봄을 실천하는 전인 간호인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숭고한 의식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와 외빈의 참여 없이, 박진배 총장 선교봉사처 한병수 처장 간호학과 김현영 학과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와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간호학과 3학년 59명의 학생이 촛불 의식과 선서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전문 간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였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진정한 간호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숭고한 의식을 마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문직 간호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여러분들이 간호하게 될 대상자의 아픈 마음까지 안아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간호사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장애인체육회, 스포츠 휠체어 전달식 개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스포츠용 휠체어 5대를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전달하였다. 이번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사업의 공모를 통해 범용 스포츠 휠체어 5대가 선정돼 군산시장애인체육관 1대, 남원문화체육센터에 1대, 김제시장애인체육관 3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도 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은 "스포츠 휠체어는 장애인체육의 필수기구 중 하나이나 높은 가격 때문에 장애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체육시설에서도 휠체어를 구입하기에 매우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체국 직원 발빠른대처 보이스포싱막아

전북지방우정청, 호지동우체국·진안부귀우체국 예방 관리 주목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전주호지동우체국과 진안부귀우체국 직원이 연이어 보이스포싱을 막아내 전북지방우정청의 보이스포싱 예방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호지동 우체국 서경미 직원



진안부귀 우체국 이경제 사무장

는 우체국 직원의 뛰어난 기지와 발빠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 25일 진안부귀우체국 금융담당직원인 이경제 사무장은 농장공사대금을 이유로 예금 2,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80대 고객의 요청에 수표 발행이냐 계좌 송금을 권유한 후 이를 거절하고 현금만을 고집하는 80대 고객을 이상하게 여겨 인근피출소와 협력해 국제전화에 의한 보이스포싱임을 밝혀 피해를 예방했다.

우정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보이스포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이스포싱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개관

남원시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단체들을 한데로 통합한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1일 개관했다.

어울림센터는 국비 5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9억9천 7백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구 향교동사무소를 지상 3층 연면적 1,090㎡ 규모로 리모델링 및 증축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추기 위해 1층에서 2층은 단체별 사무실과 교육장, 3층은 다목적 강당 등으로 조성했으며, 센터를 장애인 단체에 제공해 3월 초 입주를 마치고 4월 1일 남원시장을 비롯해 입주단체, 이용장애인, 지역주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센터에 입주한 장애인 단체는 지체, 시각, 지적, 청수, 시각, 농아협회, 신장 장애인부모회 등 8개 단체로 앞으로 이들 단체는 이곳에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김문훈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어울림센터 개관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단체에 다양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내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사는 시책을 펴나기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부안농협·부안군지부, 봄 환경정화활동 펼쳐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농협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 농가주부모임(회장 심계천) 희망드림봉사단과 함께 지난날 31일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일원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 및 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전북농협 이기복 부분부장과 농협임직원, 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 봉사단 50여 명이 내소사길 하천 주변과 농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내소사 진나무숲길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최우식 조합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형 지부장은 "아름다운 농촌 경관 보전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경북·강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사진)은 경북, 강원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은 성금 2,94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지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직원 1,857명이 참여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뜻을

모았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에도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긴급지원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전주대 글로벌거점센터 파리, 프랑크푸르트 현판 전달식

전주대학교가 지난 4월 1일 가족기업과 재학생의 글로벌 진출을 현장에서 지원할 HATCH글로벌거점센터'를 세계 한인무역협회(World-OKTA) 파리지회와 프랑크푸르트지회에 설치하기로 하고 현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현판 전달식 행사는 대학본관 집결실에서 전주대 박진배 총장 LIN3.0사업단 주승 단장, World-OKTA 서유럽총괄 손병권 부회장, 파리지회 김영길 지회장, 프랑크푸르트지회 이은주 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주대는 수년 전부터 LIN3.0사업단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지역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 HATCH글로벌거점센터를 World-OKTA 지회와 협력하여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서유럽의 런던, 동유럽의 바르샤바, 중동의 이스탄불, 중앙아시아의 비슈케크 등 4개 도시에 World-OKTA지회와 함께 HATCH글로벌거점센터를 구축하였고, 이번에 서유럽의 중심도시인 파리와 프랑크푸르트에 새로운 글로벌거



점센터를 구축하여 총 6개로 확대되었다. LIN3.0사업단 주승 단장은 "우리 대학은 지난 2018년 런던지회와 첫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산업 및 졸업생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라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웰빙의 고부가가치 식품과 문화상품이 유럽 고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글로벌 거점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